KSADP

ISSN 2288-4270 (Print)
ISSN 2733-8711 (Online)

# 발달지원연구

제10권 제2호 (2021년 8월)

KJADP

한국발달지원학회

#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 10권 제2호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021년 8월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10권 제2호 / 2021. 8.

일상 스트레스가 친밀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의 조절효과……어유경 / 1

청소년 절도비행의 심리적 특성과 개입……장혜민 · 최재광 · 이유경 · 송원영 / 19

시설거주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정서조절 프로그램 효과연구……엄연용 · 이춘자 · 송원영 / 41

성인 기질유형 잠재계층에 따른 정신적 안녕감의 차이……김수아 · 최은실 / 63

직무불안정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상연 · 김정규 / 81

성인기 성소수자들의 사랑경험을 통한 삶의 적응과정……박경은 / 99

상담자의 대리외상경험과 공감피로의 관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심진솔 · 김봉환 / 129

아동기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재우 · 장은진 / 145

마음챙김 · 수용전념에 기반한 심리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고등학교 여자 유도선수를 중심으로
……강인혜 · 김도연 / 163

영성지능 척도의 타당화……장희순 · 주해원 / 181

내러티브를 통한 애착 연구의 국내 동향: 유아 애착 연구를 중심으로……윤진영 / 199

한부모가정 느린학습자 아동에게 적용한 생태학적 접근: 치료놀이와 발달영역별 중재 중심의 사례연구
……류은진 · 옥정 / 217

모 애착불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 정서조절곤란과 자녀성별의 매개된 조절효과
……김혜원 · 이정민 / 243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1, Vol. 10, No. 2, 19-40
DOI: 10.22839/adp.2021.10.2.19

# 청소년 절도비행의 심리적 특성과 개입

장 혜 민 | 최 재 광 | 이 유 경 |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청소년 절도비행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으로 점차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다른 범죄와 연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청소년 절도비행과 관련된 문헌의 분석을 통해 절도비행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개입 방안에 대해 탐색 및 종합하여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청소년 절도비행과 관련된 학술문헌 27편과 개입 관련 자료 9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절도비행과 관련된 원인은 크게 개인적, 환경적, 발달적 원인으로 구분되었다. 개인적 원인에는 자극추구성향, 반사회성, 충동성, 자아존중감, 정서 문제가 있었으며 발달적 원인은 또래 동조성, 우월감 추구, 비행청소년과의 유대, 지위비행, 소년법으로 구성되었고 환경적 원인은 가정과 학교로 나뉘어 설명되었다. 개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여러 프로그램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외의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절도비행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연구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절도비행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이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절도, 절도비행예방프로그램, 체계적문헌고찰, 비행청소년

† 교신저자: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Tel: 041-730-5414, E-mail: song@konyang.ac.kr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음주와 흡연, 가출 등의 지위비행부터 절도, 살인, 폭행 등과 같이 사회적인 책임과 처분이 따르는 범죄 수준의 행위를 의미한다(안권순, 2006; 이정인, 2020). 최근 들어 폭행, 살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의 주체 연령이 낮아지고, 그 수법의 잔혹성도 더해지는 가운데 절도비행은 다른 소년 범죄에 비해 수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주목도가 낮았다. 하지만 2019 범죄백서에 따르면 약 10년 동안 소년 범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비행은 2009~2018년도에 전체 비행 중 약 50%를 차지하여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법무연수원, 2020), 이는 재산비행에 대한 문제가 오랜 시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재산범죄자 중 16~17세가 가장 많았고, 최근엔 14~15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법무연수원, 2020) 재산범죄의 가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이동훈, 김세진, 조미영, 이진현, 방소희, 2011; Anderson & Linden, 2014; Hirtenlehner, Leitgob & Birklbauer, 2014b). 생필품에서부터 화장품, 술, 담배, 차량 등 청소년들의 절도 품목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 더욱이 절도가 폭력, 살인, 도박, 무면허운전, 사기 등으로 이어져 절도로 인한 결과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안권순, 2008).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김원경, 2017). 이들은 자아정체감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아 환경,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이용주, 2019; 주영선, 정익중, 2019). 그 예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경제수준은 폭행, 절도 등의 심각한 비행과 관련되어 있었다(주영선, 정익중, 2019; 지정우, 2009; Church, Jaggers & Taylor, 2012). 특히, 또래관계는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또래와의 친밀성이 높고 비행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비행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순청, 이승현, 이창한, 2018; 이종원, 2013; 한우재, 정인관, 2021; 한진수, 2016). 또한, 인간관계와 생활반경의 확장으로 인해 아동기에 비해 긴장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이며(박현수, 2011), 학업, 또래관계 등의 상황으로부터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비행을 선택하게 된다(박현수, 2011; Agnew, 2011). 이와 비슷하게 불안과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비행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김원경, 2017; 홍태경, 류준혁, 2011), 청소년의 발달 환경과 특성은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일반화와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먼저 비행의 하위유형간 동일한 심리적, 환경적 원인을 공유하며 한 개인이 여러 유형의 비행을 저지른다는 의견이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Piquero, Paternoster, Mazerolle, Brame & Dean, 1999). 즉, 청소년의 절도, 폭력, 약물사용 등의 범죄행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다른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aner & Ellickson, 1996). 이와 반대로 비행의 유형에는 고유한 특징이 존재하며 한 가지 비행이 반복되고 전문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예방 및 개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제원, 이규호, 이민희, 2010; Blumstein, Cohen & Farrington, 1988). 특히, 범죄 유형 중 재산범죄는 전문화되는 특징이 있다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박현수, 이재영, 2013; 이순래, 1995; 한영선, 2012; Farrington, Snyder & Finnegan, 1988). 이는 절도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

어지는 원인에 대해 탐색하고 더욱 전문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절도를 하였을 경우 대다수가 훈방조치 되거나 조건부 기소유예, 1~4호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대검찰청, 2019),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절도, 폭력, 중독 등 비행유형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을 수강하게 된다(권해수, 김현정, 2013; 박성수, 2018; 송영지, 김수영, 김진현, 2016). 이는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개입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도 비행은 꾸준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며. 수년 전에 개발된 절도예방프로그램은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와 특성, 최신 이론 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비행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과 재범률을 차지하고 있는 절도비행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새로운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범죄분석에 따르면 절도비행청소년들은 우발적, 호기심, 생활비마련 순의 이유로 절도를 했으며, 성인 절도범죄와 다르게 유흥비 또는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대검찰청, 2019). 그러나 이러한 절도 동기에 대한 통계에서 기타 및 미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다양한 절도 동기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절도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비행의 원인, 과정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동훈 등(2011)은 문헌 고찰을 통해 심리·사회, 도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절도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진현과 이동훈(2012), 김세진, 이태영과 이동훈(2013)은 절도비행청소년의 성향과 성격특징에 따라 군집화하여 절도비행에 대한 동기, 원인, 특성을 정의했다. 또한, 김세진과 김현숙(2014), 김세진(2018)의 질적연구는 절도비행청소년이 절도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 청소년이 절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 지속하게 되는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은 단독적으로 절도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으로 절도를 저지른다(Anderson & Linden, 2014; Hirtenlehner, Blackwell, Leitgoeb & Bacher, 2014a; Hirtenlehner et al., 2014b; Li, 2009; Tremblay & Sauvêtre, 2014; Wong, 2005). 실제 통계자료에서도 소년 범죄자들은 동네친구, 학교동창 등 가까운 지인들과 절도를 행하며, 2019년의 조사에서는 16,904명의 절도비행청소년 중 12,005명이 타인과 함께 절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대검찰청, 2017, 2018, 2019). 두 번째, 청소년절도비행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비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약 50%가 1회 이상 재범을 저질렀고, 그중에서도 절도의 재범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비행과 비교하였을 때도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대검찰청, 2019). 절도비행에 대한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적 빈곤,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 중퇴 여부, 가출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노일석, 2009). 이외에도 처음 절도를 하였을 때의 약한 처벌이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영한 등 2003). 반복적인 절도는 점차 지능화, 흉악화되어 더 큰 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절도비행은 지위비행이나 다른 범죄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장기간 가정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에 따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음주나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에서부터 절도,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행하곤 한다(오세연, 2013). 청소년은 미성년으로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가출은

생계의 곤란과 직결되고, 무리를 지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상점에서 물건을 절도하거나 금품을 훔쳐 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절도과정에서 폭행이나 살인이 동반되는 등 점차 비행의 수준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오세연, 2018). 반드시 가출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의 절도는 폭행, 살인,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죄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김은경, 이동원, 2003; 이진현, 이동훈, 2012).

청소년 시절의 비행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수형, 박현수, 박상옥, 2014). 수많은 비행 중에서도 재산비행은 오랜 기간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절도비행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절도비행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은 절도비행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인 요소와 발달 특성, 사회, 환경적인 맥락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청소년 절도비행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최신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절도비행 예방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그 특성과 효과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절도비행청소년의 절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방법

### 문헌수집

청소년 절도비행과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국내·외 문헌을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 또는 프로그램 검색은 EBSCO와 KISS에서 “절도청소년”, “재산비행”, “절도비행”, “절도행동”, “탈절도” 라는 주제어를 검색하여 나온 자료 중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다. 검색항목은 논문명(Full Title)이었으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 등재된 학술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입 방안에 대한 자료는 법무부 주관 절도비행예방프로그램 문헌 2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 문헌 1개를 수집하였다. 추가적으로, RISS 검색을 이용하여 한국절도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학술문헌 2개, 사례 연구 문헌 1개를 수집하였다.

국외 문헌 또는 프로그램 수집의 경우 주로 EBSCO의 고급검색 기능을 이용하였다. “adolescent or Young Offenders or Juvenile or delinquency” AND “steal or theft or shoplifting or shoplifter”을 넣어 타이틀(TI) 검색한 후 2000~2019년도 학술 출판물로 지정하였다. 그 후 주제 탭에서 <theft>, <shoplifting>, <juvenile delinquency>, <delinquency>, <adolescence>, <juvenile delinquents>, <adolescent>, <juvenile delinquents – psychology>를 선택하여 검색하였다. 추가적으로, Google Scholar에서 “adolescent”, “Young Offenders” “Juvenile” “children” “delinquency“ ”steal” “stealing” “theft” “shoplifting” “shoplifter” 의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개입 방안에 대한 자료는 Google 검색을 이용하여 청소년 절도 예방 프로그램 2개와 개입 관련 문헌 1개를 수집하였다.

### 문헌선정

청소년 절도와 관련된 문헌의 선정기준은 첫째, 국내·외 청소년 절도 관련 문헌을 종합하기 위해 학술논문만을 선정하였다. 한편, 개입 프로그램의

경우 절도관련 프로그램이 적은 관계로 학술논문과 국가주도연구보고서, 프로그램 안내사이트(국외)들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학술지 게재일을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로 한정하였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넷째, 제목에 청소년, 절도, 학생, 재산비행이 포함된 문헌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석사, 박사 학위논문인 경우 배제하였다. 둘째, 한글,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로

표 1. 국내 청소년 절도 관련 문헌

| 번호 | 저자(년도) | 주제 | 연구방법 | 대상 |
|---|---|---|---|---|
| 01 | 노정구 등 (2002) | 자아정체감 및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 상점절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양적연구 | 부산 지역 중/고등학생 |
| 02 | 김경호 (2008) | 남자 비행청소년의 절도와 남성성에 관한 연구 | 질적연구 |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참여한 18~19세 남자 청소년/ 15~17세 미국 남자 청소년 |
| 03 | 노일석 (2009) | 청소년 절도사범 재범 예측 요인: 절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JP-RRAR) 개발 연구 | 척도 개발연구 | 보호관찰기간 동안 재범한 817명의 소년 절도범 |
| 04 | 이동훈 등 (2011) | 청소년 절도행동의 이해 :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 문헌연구 | 1961년부터 2010년까지 절도를 주제로 진행된 국내·외 학술논문과 단행본 대상 |
| 05 | 이진현 등 (2012) | 절도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유연성 | 양적연구 | 상담 프로그램 참여 명령을 받은 절도 청소년 177명 |
| 06 | 김세진 등 (2013) | 절도비행청소년의 PAI 반응 분석 | 양적연구 | 절도죄로 입건된 소년범 196명 |
| 07 | 이태영 (2013) | 남자절도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 자아존중감과 또래 동조성의 관계 | 양적연구 | 상담프로그램 참여명령을 받은 남자절도청소년 116명 |
| 08 | 조미영 등 (2013) | 남자절도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 부-자녀간 애정유대, 또래동조성 및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 부-자녀 간 애정유대의 조절효과 | 양적연구 | 상담 프로그램 참여명령을 받은 남자절도청소년 171명 |
| 09 | 김상운 등 (2014)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 | 양적연구 | 다문화가정 청소년 100명 |
| 10 | 김세진 등 (2014) | 중학생의 절도행동 극복 경험 | 질적연구 | 15~16세 중학교 절도 청소년 4명 |
| 11 | 김세진 (2018) | 청소년의 탈절도 과정 연구 | 질적연구 | 절도 경험이 있으나 6개월 이상 절도를 하지 않은 청소년 10명 |

표 2. 국외 청소년 절도 관련 문헌

| 번호 | 저자(년도) | 주제 | 연구방법 | 대상 |
|---|---|---|---|---|
| 01 | Judy, B 등 (2000) |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eers, Morality, and Theft in an Adolescent Sample | 양적연구 | 14~18세 여자청소년 91명, 남자청소년 83명 |
| 02 | Ma, J. L. (2001) | Meaning of Adolescent Shoplifting a case study of a Hong Kong Chinese Family | 질적연구 | 15세 남자 청소년 |
| 03 | Forney, J. C 등 (2001) | Juvenile delinquents' perceptions of shoplifting motives; the influence of socialization, age, and gender. | 양적연구 | 11~17세의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124명 |
| 04 | Regnerus, M. D. (2002) |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 theft and minor delinquency: A developmental test of peer-reported effects | 양적연구 | 14~19세의 청소년 1648명 |
| 05 | Wong, D. S. (2005) | A Study of Children s Shoplifting Behavior Implications to Preventive Measures | 질적연구 | 8~12세 사이의 절도청소년 20명 |
| 06 | Drozda, C. (2006) | Juveniles Performing Auto Theft_An Exploratory Study into a Deviant Leisure Lifestyle | 질적연구 | 집행유예를 받은 14~18세 사이의 남자 비행청소년 12명 |
| 07 | Carrasco, M. 등 (2006) |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as predictors of male adolescent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theft and vandalism | 양적연구 | 남자 청소년 868명 (13~17세 종단연구) |
| 08 | Forney, W. S. 등 (2006) | Exploring Moral Situations, Moral Emotions, and Moral Self as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ts' Global Self-Esteem. | 양적연구 |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85명의 절도비행청소년 |
| 09 | Li, J. C. M. (2009) | Preventing Juvenile Theft in Hong Kong: A Pour-level Strategy | 질적연구 | 10~17세의 절도비행청소년 30명 |
| 10 | Anderson, J.등 (2014) | Why Steal Cars? A Study of Young Offenders Involved in Auto Theft | 질적연구 | 차량 절도로 인해 수감중인 43명의 청소년 |
| 11 | Hirtenlehner, H. 등 (2014) | Juvenile Shoplifting Delinquency. Findings from an Austrian study | 양적연구 | 12~15세 청소년 2,911명 |
| 12 | Hirtenlehner, H. 등 (2014) |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juvenile shoplifting: A power-control theoretical analysis. | 양적연구 | 12~15세 청소년 2,911명 |
| 13 | Tremblay, P. 등 (2014) | "Jockeys and Joyriders" Revisited: Young offenders' involvement in Motor Vehicle thefts in the province of Quebec | 질적연구 | 13명의 수감중인 청소년과 34명의 비행 청소년 |
| 14 | Chui, W. H. 등 (2016) | The gendered analysis of self-control on theft and violent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Hong Kong adolescent population. | 양적연구 | 중학교에 재학중인 1,377명의 남녀청소년 |
| 15 | Vermeir, I. 등 (2017) | The Effectiveness of Fear Appeals Featuring Fines versus Social Disapproval in Preventing Shoplifting Among Adolescents | 양적연구 | 서유럽 국가의 352명의 청소년(여성 226명, 남성 126명) |
| 16 | Hirtenlehner 등 (2017) | Can Situational Action Theory Explain the Gender Gap in Adolescent Shoplifting Results From Austria. | 양적연구 | 오스트리아 7~8학년 2,911명 |

쓰인 경우 배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가 성인, 아동일 경우 배제하였다. 국내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10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문헌은 배제하였다. 넷째, 국외 문헌의 경우 마약, 총기 절도 등의 한국 문화와 맞지 않는 문헌은 배제하였다. 이러한 선정 및 배제기준에 의해 국내 11개, 국외 16개, 국내·외 개입관련 자료 9개 총 36개가 선정되었다. 문헌 및 자료의 간략한 정보는 표 1과 2에 제시하였다.

## 결과

### 청소년 절도비행 관련 연구동향

청소년 절도비행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문헌은 2000년대 이후 2002년 청소년 상점 절도와 관련된 탐색적 연구 1편을 시작으로, 2008년 1편, 2009년 1편, 2011년 1편, 2012년 1편, 2013년 3편. 2014년 2편, 2018년 1편으로 총 11편이 게재되었다. 다른 연도에 비해 2010~2014년도에 총 7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09년도부터 2012년도에 가장 많은 소년 형법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재산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법무연수원, 2020). 따라서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 절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0~2014년도에 관련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총 11편 중 6편은 양적 연구였으며 3편은 질적 연구, 1편은 문헌 연구, 1편은 척도 개발연구였다. 대부분의 양적 연구는 절도비행청소년의 심리학적, 환경적 특성이 절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주요 변인은 절도에 대한 태도, 자극추구성향, 성격특성, 가정 및 부모 환경, 자아존중감, 또래동조성으로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모두 절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질적 연구의 경우는 절도비행청소년과의 면담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청소년의 절도 행동의 원인에 대해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절도를 그만두는 과정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문헌연구는 2011년에 게재된 논문으로 1961~2010년도의 절도를 주제로 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총 63편의 문헌을 사용하여 청소년 절도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국외 문헌의 경우 2000년도 1편, 2001년도 2편, 2002년도 1편, 2005년도 1편, 2006년도 3편, 2009년도 1편, 2013년도 1편, 2014년도 3편, 2016년도 1편, 2017년도 2편으로 총 16편이 게재되었다. 국내와 달리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청소년 절도비행 관련된 논문이 다수 게재된 것을 알 수 있다. 총 16편 중 10편의 양적 연구와 6편의 질적 연구로 구성되어있다. 양적 연구 중 7편은 절도비행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 대상이었으며, 주요 연구 변인은 절도에 대한 태도, 성격특성, 자기통제력, 도덕성, 부모 및 또래의 영향 등으로 확인되었다. 질적 연구는 모두 절도비행청소년을 인터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대부분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절도 과정, 절도에 대한 생각, 동기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구체적인 연도와 게재된 학술지, 양적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정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구체적으로 표본의 성별, 절도 이력의 유무 등이 다르다. 국내 문헌의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일반 남·녀 청소년인 논문은 1편으로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되었다. 남·녀 절도비

표 3. 국내·외 청소년 절도 관련 학술문헌 분류

| 구분 | | | 연도 | 2000 ~ 2004 | 2005 ~ 2009 | 2010 ~ 2014 | 2015 ~ 2019 | 총 |
|---|---|---|---|---|---|---|---|---|
| 국내 | 학술지 분류 | | 청소년 관련 학술지 | | 1편 | 2편 | | 3편 |
| | | | 상담학 관련 학술지 | | | 3편 | | 3편 |
| | | | 심리학 관련 학술지 | | 1편 | | | 1편 |
| | | | 교육 관련 학술지 | | | 1편 | 1편 | 2편 |
| | | | 기타(마케팅, 콘텐츠) | 1편 | | 1편 | | 2편 |
| 국외 | 학술지 분류 | | 청소년 관련 학술지 | 1편 | 2편 | | | 3편 |
| | | | 가족 및 사회 관련 학술지 | 3편 | | | | 3편 |
| | | | 심리학 관련 학술지 | | 1편 | | 1편 | 2편 |
| | | | 범죄 관련 학술지 | | | 4편 | 2편 | 6편 |
| | | | 기타(레저, 아시아 비교 개발) | | 2편 | | | 2편 |
| 국내·국외 | 양적 연구 주요 변인 | 개인 | 절도에 대한 태도 | 1편 | | | 1편 | 2편 |
| | | | 자아정체감 | 1편 | | | | 1편 |
| | | | 자극·감각 추구 성향 | 1편 | | 2편 | | 3편 |
| | | | 자아존중감 | | 1편 | 2편 | | 3편 |
| | | | 도덕성 | 1편 | 1편 | | 1편 | 3편 |
| | | | 자기통제력 | | | | 2편 | 2편 |
| | | | 성격특성 | | 1편 | 1편 | | 2편 |
| | | | 학교적응유연성 | | | 2편 | | 2편 |
| | | 환경 | 가정 환경 및 양육 태도 | 2편 | | 3편 | | 3편 |
| | | 발달 | 또래동조성 · 또래 영향 | 2편 | | 3편 | 1편 | 6편 |

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4편으로 절도로 인해 소년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남·녀 청소년을 모집하여 연구하였다. 절도비행청소년 중에서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4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비행에서뿐만 아니라 절도비행 역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수가 많아(김경호, 2008; 대검찰청, 2019), 남자 절도비행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연구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 1편, 절도에 관한 주제로 진행된 국내·외 연구를 분석한 문헌 논문 1편이 있었다. 국외의 경우 일반 남·녀 청소년 대상 논문은 6편이었다. 이 중 3편은 동일한 연구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된 대규모 온라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패널데이터 활용 연구 1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으로 종단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남자 절도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편으로 모두 질적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남·녀 절도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총 5편으로 절도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절도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혼합하여 조사한 연구는 1편으로 절도비행청소년과 잠재적 절도비행청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선정된 문헌의 내용적 분석 결과 청소년 절도비행의 원인은 크게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발달적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되었다. 각 특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도비행의 원인 : 개인적 특성**

첫째, 절도비행청소년들은 자극추구성향이 높아 지루함을 쉽게 느끼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자극추구성향과 호기심, 일상탈출 욕구는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에서 청소년의 개인적 특징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요인이었다(노정구, 김상조, 2002; 이태영, 송미경, 이동훈, 2013; 조미영, 이동훈, 2013; Anderson & Linden, 2014; Chui & Chan, 2016; Drozda, 2006; Forney & Crutisinger, 2001; Li, 2009). 높은 자극 자극추구성향은 또래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이 지루하고 단조롭다고 생각하게 하며, 쉽게 흥미를 잃게 한다(노정구, 김상조, 2002; 이태영 외, 2013; 조미영, 이동훈, 2013; Li, 2009). 국외 연구의 경우 청소년이 절도를 통해 즉각적인 만족과 스릴을 얻고자 하는 점을 레저에 비유하였으며(Anderson & Linden, 2014; Drozda, 2006; Forney & Crutisinger, 2001), 국내의 질적 연구에서도 짜릿함, 스릴 등의 욕구가 절도비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진, 2018). 자극추구성향으로 인해 유발되는 호기심 또한 청소년의 절도비행과 연관이 있었다. 실제로 청소년은 물건이 필요해서 훔치는 것보다 절도 후 도주 과정에 호기심을 가지고 절도를 하였으며(Forney & Crutsinger, 2001), 절도행위 성향의 4가지 하위 요인(절도 충동, 몰입, 반사회성, 심적 고통) 중 절도 몰입군은 호기심, 재미 및 스릴을 위해 절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현, 이동훈, 2012).

둘째, 높은 반사회성과 낮은 도덕성을 지닌 청소년은 절도 행동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려 했으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여러 연구에서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성을 군집별로 분석한 결과 반사회적성향이 높은 군집은 학교생활 부적응, 부모, 교사와의 불화 등 타인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선택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김세진 외 2013; 이진현, 이동훈, 2012). 반사회적 성향의 특징 중 낮은 도덕성 또한 청소년의 절도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지는데(Forney, Crutsinger & Forney, 2006; Judy & Nelson, 2000),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청소년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물건을 훔칠 수 있다(Forney et al., 2006).

셋째, 청소년의 높은 충동성은 절도비행을 예측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Carrasco, Barker, Tremblay & Vitaro, 2006; Chui & Chan, 2016). 절도비행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충동적으로 절도 행동을 하였다(김세진, 2018). 마찬가지로 Carrasco 등(2006)의 연구에서도 충동성이 높은 남자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절도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수가 충동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넷째, 절도비행청소년들은 팽창된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이진현, 이동훈, 2012; 이태영 외, 2013; Forney et al., 2006). 이러한 결과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 학업, 운동 등 적응적인 노력으로 인해 얻어지는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발달하지만, 절도비행청소년들은 비교적 손쉽고, 즉각적인 절도 행동을 통해 성취를 경험하기 때문에 지나치고 부적절한 자아존중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김경호, 2008; 이진현, 이동훈, 2012; 이태영 외, 2013). 또 다른 이유로는 절도비행이 다른 비행보다 지적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도를 성공했을 때 형성되는 과대 자아가 팽창된 자아존중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김경호, 2008; 이진현, 이동훈, 2012).

다섯째,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 문제는 절도비행에 영향을 주었다. 절도비행 위험집단이 비위험집단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절도를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은 불안 점수를 보였다(김세진 외, 2013; Carrasco et al., 2006). 또한, 김세진 등(2013)의 연구에서 내재화성향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불안, 우울, 불안 관련 장애, 자살, 스트레스, 망상이 높아 심리적인 문제와 절도 행동 간에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절도비행의 원인 : 발달적 특성**

첫째, 또래 동조성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 사이에서의 소속감, 인정 등을 얻기 위해 절도 행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 청소년보다 절도청소년들이 더 높은 또래 동조성을 나타냈으며(이태영 외, 2013), 또래를 따라 절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구두(절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해 줌), 행동(절도비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계획하고 동행해 줌), 권위(또래 집단 내의 권위적인 리더의 비행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음)로 나타났다(Li, 2009). 절도 행동은 대다수 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또래 집단에 소속된다는 느낌을 주며(Anderson & Linden, 2014; Forney & Crutsinger, 2001; Judy & Nelson, 2000), 실제로 질적 연구의 '친구들이 하는 건 나도 하고 싶음', '친구들과 의리를 위해 절도를 함' 등의 소속감 범주는 청소년들이 또래 사이의 소속감을 추구하기 위해 절도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세진, 2018).

둘째, 주로 남자 청소년들은 우월감과 남성성 추구를 위해 절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자 비행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과 달리 학업 및 직업적 성취 등 올바른 방식으로 남성성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비행을 통해 남성성을 표출하려는 경향을 보이며(이동훈 외, 2011), 절도 행동을 통해 경제적 능력, 담력, 지적 능력을 과시하여 남성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호, 2008; Anderson & Linden, 2014). 또한, 질적연구에 나타난 '일인자가 되는 짜릿함', '과시를 통한 자기만족', '또래들 사이에서 경찰서에 가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임' 등을 보아 절도비행청소년들이 절도를 통해 우월감의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세진, 2018).

셋째, 비행청소년들과의 부적절한 유대 관계는 절도비행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Hirtenlehner 등(2014b)은 절도비행청소년들과의 높은 유대감은 스릴을 추구하게 하고,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을 약하게 만들어 절도비행을 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어 절도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김세진, 2018; 김세진 외, 2013; 이동훈 외, 2011), 이는 사회적, 인지적 결함을 생기게 해 절도를 지속하게 할 수 있다(이

동훈 외, 2011).

넷째,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절도비행과 연관되어 있었다. 절도 및 재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음주, 흡연, 가출 등의 높은 지위비행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세진 외, 2013; 노일석, 2009; Anderson & Linden, 2014), 이는 비행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고 범죄 집단을 형성하여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박기대, 2015; 오세연, 2018; 정혜원, 박윤환, 2012).

다섯째, 절도비행이라는 특성과 소년법은 청소년에게 가벼운 법적 처벌을 예상하게 해 절도 행동을 지속하게 할 수 있다. 국내 절도비행청소년의 훈방 또는 합의, 기소유예 경험 등 청소년 절도에 대한 가벼운 처분은 절도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김세진, 2018; 김세진, 김현숙, 2014). 국외 역시 대부분의 절도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이 붙잡힐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붙잡히더라도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정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Hirtenlehner et al., 2014a; Li, 2009). 또한, 대부분의 절도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이 받은 법적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했으며(Anderson & Linden, 2014), 절도 행동에 대해 단순히 훈육, 주의만 받았던 경험이 절도를 지속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Li, 2009).

### 절도비행의 원인 : 환경적 특성

첫째,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역기능적 가정환경은 절도비행과 관련이 있었다(양호정, 2015; 이동훈 외, 2011). 가부장적인 가정의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가정의 통제를 덜 받기 때문에 집 밖에서 비행청소년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 절도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Hirtenlehner et al., 2014a), 보수적인 사회 문화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는 절도 행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Ma, 2001). 국내 연구에서 절도비행 청소년들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리, 관심이 부족해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이외의 심리 정서적 욕구는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진, 2018; 김세진, 김현숙, 2014; 이진현, 이동훈, 2012). 부모의 폭력적인 태도와 절도 등의 비행을 저지를 때만 관심을 보이고 훈육 및 체벌을 하는 비일관적인 양육방식 역시 절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이었다(김세진 외, 2014; 이진현, 이동훈, 2012). 반대로,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과 친밀함은 비행청소년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도덕적 신념의 형성에 기여하며(Hirtenlehner et al., 2014a), 가족의 신뢰와 지지는 절도비행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김세진, 2018; 김세진, 김현숙, 2014). 이외에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상대적 비교는 절도비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진, 2018; Hirtenlehner et al., 2014a; Wong, 2005).

두 번째, 학교생활 부적응, 자퇴 및 퇴학, 부정적인 교사의 태도 등의 학교와 청소년간의 역기능적 관계는 절도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절도비행청소년은 따돌림, 폭력, 성적 스트레스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이진현 외, 2012; Anderson et al., 2014; Regnerus, 2002), 학업수행의 문제와 교사의 무관심과 갈등은 절도비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김세진, 2018; 김세진, 김현숙, 2014). 이러한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학교를 떠나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절도와 같은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김세진, 2018; 이동훈 외, 2011). 반대로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믿음은 절도비행청소년이 절도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김세진, 2018; 이동훈 외, 2011).

표 4. 국내·외 청소년 절도 개입 프로그램 정리

| 구 분 | | 기반 이론 | 주요 목표 | 효과 검증 |
|---|---|---|---|---|
| 기관주관 | 절도비행예방프로그램 “선택과 책임의 주체는 나” (2008) | 자기통제이론, Glasser의 현실치료 | 기능적인 사회구성원을 위한 책임감 강화 | X |
| | 강·절도비행재범방지프로그램 “선택과 책임의 주체는 나”(2011) | 제시하지 않음 | 비행 억제에 대한 동기 및 책임감 향상, 물질주의적 가치관 수정 | X |
| | 고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개입 매뉴얼: 비행편 (2019) | 사회학습이론, 역할극, 인지행동이론 | 긍정적 자아와 자기통제의 향상을 통한 재비행 예방 | O |
| 국내 학술 | 절도행동청소년을 위한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2012) | 교류분석이론 | 성격 기능의 변화를 통한 사회 적응 | O |
| | 도벽문제가 있는 여중생의 가족치료 사례연구(2015) | MRI 가족치료이론 구조적 가족치료이론 | 가족 의사소통방식, 부모 양육방식의 변화를 통한 도벽행동 완화 | X |
| | 절도비행청소년을 위한 단기집중 절도예방 프로그램(2017) | 자기통제이론, Glasser의 현실치료 | 충동성 감소와 자기통제력 향상을 통한 재비행 예방 | O |
| 국외 학술 | Evaluation of an individualized treatment program for adolescent shoplifter(2003) | 제시하지 않음 | 절도비행청소년의 특징에 맞는 개별적인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 O |
| 국외 프로그램 | STOPLIFT 프로그램 | 제시하지 않음 | 법적 결과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통한 재범 예방 | X |
| | YES 프로그램 | 제시하지 않음 | 절도비행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의 중요성 학습을 통한 재비행 예방 | O |

### 절도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

국내에서는 사회학습이론, 인지행동, 교류분석이론, 가족치료, 현실치료 등 다양한 이론을 이용하여 절도비행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국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절도비행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연구는 매우 적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의 절도비행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2008년 개발된 절도비행예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오남주, 이나리, 2008). 절도 동기 탐색, 절도로 인한 결과와 피해에 대한 이해, 대안 행동 및 진로 탐색 등의 활동을 통해 절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와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에서의 기능적인 역할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이후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목표와 바람직한 경제 관념 학습 활동이 추가된 법무부 주관 강·절도비행 재범방지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김지수 외, 2011). 천원기(2017)는 이러한 법무부 주관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절도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충동성이 낮아지고 자기통제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비행유형별 특성에 기반을 둔 단기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최근에는 절도와 폭력비행을 중심으로 인지, 정서, 행동 등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차주환 외, 2019), 충동성, 공격성 및 적대감 감소에 효과를 나타냈다. 이외에 교류분석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또래 동조성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이태영, 이동훈, 정윤서, 이영희, 2012), 가족치료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 양식을 개선하고 여중생의 도벽문제행동을 변화시킨 사례연구는 절도비행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양호정, 2015).

국외의 경우 절도 금액에 따른 금전적 피해보상, 절도 예방 영상 시청, 피해자에게 편지 쓰기 등 절도비행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인 프로그램이 책임감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Kelley, Kennedy & Homant, 2003). 또한, 법원으로부터 교육 명령을 받은 절도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STOPLIFT' 프로그램과 'YES'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절도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손실 이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 책임감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YES' 프로그램의 경우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국내 및 국외 개입 관련 문헌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표 4에 제시하였다.

## 논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절도비행의 추이를 확인하였으며 절도비행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탐색하여 청소년 절도비행의 촉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 발달적,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절도비행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성, 효과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절도비행과 관련된 심리학적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절도비행과 관련된 요인을 크게 개인적 특성, 발달적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특성은 기질,

심리, 정서로 구분할 수 있다. 자극추구성향은 절도비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기질적 특성으로, 스릴 및 재미를 위해 절도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심리 및 정서적 특성은 반사회적 특성과 팽창된 자아존중감, 높은 충동성, 우울 및 불안 수준이 절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과장된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김태량, 김경화, 2017; 박상규, 조혜선, 2012; 신동업, 2013; 진혜민, 배성우, 2012).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과 더불어 올바르고 적절한 자존감 형성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 절도비행 동기의 대부분이 우발적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충동성이 절도비행과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대검찰청, 2019).

발달적 특성은 청소년기의 특성과 청소년 사법체계(소년법 적용)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도비행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기 특성으로는 동조성, 우월감 추구, 남성성, 비행청소년과의 유대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 절도비행은 공범률이 높고, 이는 동조성이 절도비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세진, 2018; Kivivuori, 2007). 사법체계는 절도비행에 대한 낮은 처벌수위와 지위비행으로 구성되며, 낮은 처벌 수위는 국내·외에서 모두 절도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고 이는 절도비행을 반복하게 하며 범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아지게 된다(김해운, 2010; 대검찰청, 2019).

환경적 특성은 가정과 학교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의 특성은 양육방식과 경제적 빈곤으로 구성되며, 가정에서 경험한 부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가출을 야기하고, 비행청소년과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절도비행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Hirtenlehner et al., 2014a). 학교에서의 특성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중단, 교사의 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벗어나 비행청소년들과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절도와 같은 다양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이동훈 외, 2011). 역기능적인 가정과 학교 환경은 절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비행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며(전대성, 김동욱, 2020; 진혜민, 배성우, 2012; 현다경, 김형모, 2018), 실제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비행으로 이어진다는 종단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조윤영, 2019).

둘째, 청소년 절도예방을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탐색해본 결과, 다른 비행 프로그램 연구와 달리 절도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법무부 주관으로 개발된 절도비행예방프로그램(2008)과 강·절도비행 재범방지 프로그램(2011)이다. 두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치료와 동기강화치료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통제력 강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책임, 미래 조망, 피해자 공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프로그램의 경우 소년원과 보호처분 이수 교육과정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정확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를 수정 보완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절도비행청소년을 위한 단기집중 절도예방 프로그램에서는 충동성이 감소되고 자기통제력은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천원기, 2017).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절도비행에 대한 인과적

요인과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검증 연구에 대한 문헌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청소년 절도비행에 대한 처분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절도범죄는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는 반면(법무연수원, 2020; 이동훈, 김세진, 조미영, 이진현, 방소희, 2011; Anderson & Linden, 2014; Hirtenlehner, Leitgob & Birklbauer, 2014b),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본 절도비행의 특징 중 가벼운 처분은 절도 행동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였다.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고, 범행기술을 학습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재범률이 높아지고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 절도비행에 대한 처분은 다른 비행에 비해 처분이 가볍고 교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도비행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처분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도에 대한 약한 처분은 처벌로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절도를 통한 쾌감, 성취감 등 보상적인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여 반복적인 절도로 이어질 수 있다(김세진, 2018; 김세진, 김현숙, 2014; 김해운, 2010). 이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이용주, 2019). 그러나 강력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Redding(2010)은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낙인, 사회적 지원의 감소, 사회 참여 제한 등으로 인해 다시 범죄로 이어지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소년범의 환경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교정 보다는 처벌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재범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박상식, 2017; 이금숙, 2015; 이훈재, 2014). 따라서 절도비행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무조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사법처분 과정 내에서 스스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절도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처분 이후 원활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교육과 지역사회 복지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절도비행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차원적 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청소년 비행은 단일차원의 문제로 나타나기보다 개인, 발달,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절도비행에 대한 관점을 단일 측면으로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절도비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파악한 구성요소는 크게 개인적 요인, 발달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청소년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절도비행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각의 특성들은 상호작용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각 특성과의 관계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적응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이나 충동성을 경험할 수 있고, 가정을 벗어나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며, 절도비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 발달, 환경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이 연구의 결과는 절도비행에 대한 통합적 모델을 제시함으로 절도비행에 대한 다차원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절도비행의 심리적 기제 검증과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과 같은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 절도비행은 다른 강력범죄의 예측요인이 될 만큼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청소년 절도가 다른 범죄보다 피해의 수준이 경미하고 훈방, 합의 등으로 인해 처분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 연구에서 주된 연구주제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절도비행은 단순히 다른 강력범죄보다 경한 수준의 비행이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를 야기하거나 청소년의 점진적 일탈을 예측할 수 있는 비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비행 초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범죄 유형 중 재산범죄는 전문화되는 특징이 있어 성인 재산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절도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범 예방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약 10년 전에 개발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절도 행동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각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교한 이론적 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 절도비행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시사점과 함께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이 존재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탐색하는 방식만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즉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추론된 내용을 결과로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후속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종합된 모델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모델을 구성하는 각 요인이 절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절도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횡단 또는 종단으로 측정하여 검증하는 양적 연구와 초점화된 집단인터뷰 방식(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특징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제시된 모델의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치료적 역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을 위해 학술지에 출간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추론하는데 분석된 연구의 수가 적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 선정 및 배제기준을 설정하여 문헌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절도비행과 관련된 연구 중 심리학과 관련된 연구만을 선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과정을 통해 검증된 학술연구만을 채택하여 결과 도출을 위해 분석된 연구의 수가 적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확대한 결과를 제시하여 폭넓은 관점으로 청소년 절도비행을 이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과거 문헌연구와 달리 최근에는 메타분석과 같이 기존 연구결과 값을 통해 범주별 효과크기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효과크기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선행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메타분석과 같은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적용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절도비행에 대한 최신 추이와 처벌과정을 탐

색하고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비행에 대한 다차원적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고순청, 이승현, 이창한 (2018).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2), 9-32.

고제원, 이규호, 이민희 (2010).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별 PAI 프로파일. 법학연구, 39, 157-176.

권해수, 김현정 (20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2), 261-290.

김경호 (2008). 남자 비행 청소년의 절도와 남성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 복지 연구, 10(3), 167-182.

김상운, 신재헌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3), 195-202.

김세진 (2018). 청소년의 탈절도 과정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487-516

김세진, 김현숙 (2014). 중학생의 절도행동 극복 경험. 상담학연구, 15(1), 431-457.

김세진, 이태영, 이동훈 (2013). 절도비행청소년의 PAI 반응 분석.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1), 169-188.

김영한, 이춘화, 서정아, 조한범, 이재분, 손유미 (2003). [연구보고 03-R 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94.

김원경 (2017). 청소년 비행 관련 요인의 성별 및 발달적 비교 연구. 학교사회복지, 39, 313-345.

김은경, 이동원 (2003). [연구보고 03-R 40]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재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93.

김지수, 오남주, 이나리, 최광식, 이병남, 이상훈 (2011). 강·절도비행 재범방지 프로그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김태량, 김경화 (201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2), 628-643.

김해운 (2010). 재산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비행원인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일석 (2009). 청소년 절도사범 재범 예측 요인: 절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JP-RRAR)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449-470.

노정구, 김상조 (2002). 자아정체감 및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 상점절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7(3), 155-175.

대검찰청 (2017). 2017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8). 2018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9). 2019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박기대 (2015). 일반 청소년과 경찰서 입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관한 연구: 지위비행과 범죄원인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상규, 조혜선 (2012). 교도소 수감 청소년의 심리적 • 환경적 특성. 교정복지연구, 27, 59-73.

박상식 (2017). 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5(4), 99-126.

박성수 (2018). 효율적인 소년범죄 사회내처우를 위한 정책제언-보호관찰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18(2), 123-159.

박현수, 이재영 (2013). 청소년 비행유형 간의 관계: 재산비행과 폭력비행의 전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2), 155-186.

박현수 (2011). 청소년 비행의 변화유형과 영향요인. 범죄와 비행, 1, 165-187.

법무연수원 (2020). 2019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송영지, 김수영, 김진현 (2016). 위기청소년을 위한 비행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0, 49-74.

신동업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련 비행과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9, 113-137.

안권순 (200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행경험 및 관련 요인 비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권순. (2008). 비행청소년의 비행 경험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6(4), 55-65.

양호정 (2015). 도벽문제가 있는 여중생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299-332.

오남주, 이나리 (2008). 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 법무부 안산대안교육센터.

오세연 (2013).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 현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2(3), 147-172.

오세연 (2018). 가출팸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대상자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7(2), 177-200.

이금숙 (2015). 소년범죄와 교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1, 182-209.

이동훈, 김세진, 조미영, 이진현, 방소희 (2011). 청소년 절도행동의 이해: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9(1), 23-47.

이순래 (2002).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148.

이용주 (2019). 청소년범죄 유형과 원인 및 예방대책. 교정상담학연구, 4(2), 27-49.

이정인 (2020). 비행청소년의 자아인식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관계와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증.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58, 71-95.

이종원 (2013).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 1-82.

이진현, 이동훈 (2012). 절도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유연성. 상담학연구, 13(1), 231-253.

이태영, 송미경, 이동훈 (2013). 남자절도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 자아존중감과 또래 동조성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34(1), 141-158.

이태영, 이동훈, 정윤서, 이영희 (2012). 절도행동청소년을 위한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재활심리연구, 19(3), 507-529.

이훈재 (2014). 소년범죄의 실태 및 동향. 소년보호연구, 27, 199-228.

전대성, 김동욱 (2020).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실태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3(1), 203-233.

정혜원, 박윤환 (2012). 신 비행지표 활용을 통한 청소년비행에 대한 무단결석의 역할 분석: 학교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0, 269-305.

조미영, 이동훈 (2013). 남자 절도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 부-자녀 간 애정유대, 또래 동조성 및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 부-자녀 간 애정유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4(2), 801-818.

조윤영 (2019).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 학교적응, 청소년 비행 간 종단관계 검증. 청소년문화포럼, 145-172.

주영선, 정익중 (2019).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청소년연구, 30(4), 33-62.

지정우 (2009). 청소년 범죄의 환경적 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17, 1-22.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차주환, 이창호, 박종효, 박준영, 장혜미, 손지아 (2019). 고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개입 매뉴얼: 비행편.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천원기 (2017). 절도비행청소년을 위한 단기집중 절도예방 프로그램 효과 연구. 소년보호연구, 30(3), 167-191.

최수형, 박현수, 박상옥 (2014).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50.

한영선 (2012). 마코프체인 분석을 이용한 범죄전이 연구. 형사정책연구, 92, 257-275.

한우재, 정인관 (2021). 부모양육방식, 또래영향, 지역사회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6, 57-80.

한진수 (2016). 지위비행청소년의 비행이행과정 영향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23(7), 59-85.

현다경, 김형모 (2018). 청소년의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및 지역사회환경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인식 및 정서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4), 1-26.

홍태경, 류준혁 (20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3), 113-138.

Agnew, R. (2011). *Toward a unified criminology: Integrating assumptions about crime, people and society* (Vol. 1). NYU Press.

Anderson, J., & Linden, R. (2014). Why steal cars? A study of young offenders involved in auto theft.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56*(2), 241-260.

Blumstein, A., Cohen, J., & Farrington, D. P. (1988). Criminal career research: Its value for criminology. *Criminology, 26*(1), 1-35.

Carrasco, M., Barker, E. D., Tremblay, R. E., & Vitaro, F. (2006).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as predictors of male adolescent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theft and vandal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7), 1309-1320.

Chui, W. H., & Chan, H. C. (2016). The gendered analysis of self-control on theft and violent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Hong Kong adolescent population. *Crime & Delinquency*, *62*(12), 1648-1677.

Church II, W. T., Jaggers, J. W., & Taylor, J. K. (2012). Neighborhood, poverty, and negative behavior: An examination of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social control theor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5), 1035-1041.

Drozda, C. (2006). Juveniles performing auto theft: An exploratory study into a deviant leisure lifestyle. *Leisure/Loisir*, *30*(1), 111-132.

EAC network “STOPLIFT program” EAC network. 홈페이지. https://eac-network.org/stoplift/. 에서 자료 얻음.

Farrington, D. P., Snyder, H. N., & Finnegan, T. A. (1988). Specialization in juvenile court careers. *Criminology, 26*(3), 461-488.

Forney, J. C., & Crutsinger, C. A. (2001). Juvenile delinquents′ perceptions of shoplifting motives: The influence of socialization, age, and gender.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3*(1), 31-36.

Forney, W. S., Crutsinger, C., & Forney, J. C. (2006). Exploring Moral Situations, Moral Emotions, and Moral Self as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ts′ Global Self-Esteem.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4*(4), 345-367.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Hirtenlehner, H., & Treiber, K. (2017). Can situational action theory explain the gender gap in adolescent shoplifting? Results from Austria.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27*(3), 165-187.

Hirtenlehner, H., Blackwell, B. S., Leitgoeb, H., & Bacher, J. (2014a).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juvenile shoplifting: A power-control theoretical analysis. *Deviant Behavior*, *35*(1), 41-65.

Hirtenlehner, H., Leitgob, H., & Birklbauer, A. (2014b). Juvenile Shoplifting Delinquency. Findings from an Austrian study. *Practice (International Edition Vol. 4)*, 14-29.

Judy, B., & Nelson, E. S. (2000).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eers, morality, and theft in an adolescent sample. *The High School Journal*, *83*(3), 31-42.

Kelley, T. M., Kennedy, D. B., & Homant, R. J. (2003). Evaluation of an individualized treatment program for adolescent shoplifters. *Adolescence*, *38*, 725-733

Kivivuori, J. (2007). Crime by proxy: Coercion and altruism in adolescent shoplifting.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5), 817-833.

Li, J. C. M. (2009). Preventing Juvenile Theft in Hong Kong: A Pour-level Strategy. *The Journal of Comparative Asian Development*, *8*(2), 397-420.

Ma, J. L. (2001). Meaning of adolescent shoplifting: a case study of a Hong Kong Chinese family.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4), 69-83.

NASP(National Association for Shoplifting Prevention). “YES program” NASP(National Association for Shoplifting Prevention) 홈페이지. http://www.takeatheftclass.org/youth-educational-shoplifting-program.htm.에서 자료 얻음.

Paternoster, R., & lovanni, L. (1989). The labeling perspective and delinquency. An elaboration of the theory and an assessmeny of the evidence. *Justice Quarterly, 6*(3), 359-394.

Piquero, A., Paternoster, R., Mazerolle, P., Brame, R., & Dean, C. W. (1999). Onset age and offense special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6*(3), 275-299.

Redding, R. E. (2010). Juvenile transfer laws: An effective deterrent to delinquency? *Juvenile Justice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홈페이지. https://www.ojp.gov/pdffiles1/ojjdp/220595.pdf에서 자료 얻음.

Regnerus, M. D. (2002).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 theft and minor delinquency: A developmental test of peer-reported effects. *Social Science Research*, *31*(4), 681-705.

Saner, H., & Ellickson, P. (1996). Concurrent risk factors for adolescent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9*(2), 94-103.

Tremblay, P., & Sauvêtre, N. (2014). "Jockeys and Joyriders" Revisited: Young Offenders' Involvement in Motor Vehicle Thefts in the Province of Quebec.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56*(2), 167-183.

Vermeir, I., De Bock, T., & Van Kenhove, P. (2017). The effectiveness of fear appeals featuring fines versus social disapproval in preventing shoplifting among adolescents. *Psychology & Marketing*, *34*(3), 264-274.

Wong, D. S. (2005). A study of children's shoplifting behavior: Implications to preventive m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12*(1-2), 49-68.

1차 원고접수 : 2021. 06. 30.
수정원고접수 : 2021. 07. 26.
최종게재결정 : 2021. 08. 30.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1, Vol. 10, No. 2, 19-40
DOI: 10.22839/adp.2021.10.2.19

# Review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 of the Juvenile Thefts

HeaMin Jang
Departmen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M.A. candidate

Jaegwang Choi
Departmen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Ph.D. candidate

Yu-Kyeong Lee
Departmen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M.A. candidate

Wonyoung Song
Department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Juvenile theft shows a very high incidence and recidivism rate among juvenile crimes. Also, the age of crime is gradually decreasing and there is a trend that is linked to other crim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a theoretical framework by exploring and synthesizing the causes and interventions of theft by analyzing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theft of adolescents. To this end, 27 academic literature related to domestic and foreign juvenile theft and 9 intervention-related materials were selected and analyzed. Results were as follows. Personal causes related to youth theft include sensation-seeking tendencies, antisociality, impulsivity, low self-esteem, and emotional problems. Developmental issues consisted of peer conformity, the pursuit of superiority, bonds with delinquent youth,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law. Environmental issues were divided into home and school. In Korea, several programs have been studied based on various theories, but in the case of overseas, there have been very few programs that only target juvenile thefts in addition to the programs that are actually operated in the community.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related to juvenile thefts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juvenile theft, juvenile theft prevention program,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uvenile delinquency*